

일기에서 SNS로*

— 매체변화에 따른 일기의 장르사적 연구

최 은 아 (성신여대)

I. 들어가며

후기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역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과 SNS일 것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통신기능과 컴퓨터 지원기능을 탑재하여 각종 응용 프로그램 (앱, application)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능형 단말기이다.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탈경계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이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맞물려 수많은 SNS가 등장하는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SNS인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탈경계적이고 열린 시선을 견지하는 후기 정보화시대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140자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인 마이크로 블로그 (micro-blog), 즉 트위터를 통한 의사소통방식은 급기야 2011년에 중동의 봄¹⁾을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017-A00081)

- 1) 아랍의 봄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례 없는 시위 및 혁명은 2010년 12월 이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총칭한다.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모리타니,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에서도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반정부 시위에서는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행진은 물론 대규모 집회형식도 나타났다. 집회조직 및 정보공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였고,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의사소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범한 시민 저항 운동을 이끄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여러 반정부 시위 가운데,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반정부 시위는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혁명이 되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B%9E%8D%EC%9D%98_%EB%B4%84

SNS는 매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현재의 SNS 형태는 음성이 아닌 문자를 배열하여 의사소통하는 문자기반 방식이다. 아날로그적인 쌍방향 의사소통방식이라면 가장 먼저 편지가 연상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형식의 단방향 의사소통으로서의 일기도 문자기반 의사소통방식에 해당한다. 디지털 기반 의사소통매체는 트위터를 포함하여 페이스북, 플리커 (flicker), 잇글링 (itgling)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SNS 형태가 있으며 그 구조에서 일기처럼 단방향 의사소통 형태를 보인다. 얼핏 보기에도 일기와의 유사점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SNS는 전통적인 문학 장르인 일기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1990년경부터 나타난다. 이 시기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블로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SNS가 싸이월드처럼 글과 사진, 음악 및 스크랩 기능이 제공되는 포털사의 각종 블로그 형태와 온라인 일기형태를 거치며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체변화와 문학이 맺는 복잡한 상관관계는 잘 눈에 띄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독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반에 걸쳐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왜 우리가 SNS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문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 까닭은 오늘날 핫 이슈인 포털 웹 2.0이나 블로그, UCC 등의 미디어 현상을 다루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전자매체시대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공통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개별적인 연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문학적 관점을 배제한 채 새로운 매체를 전적으로 마케팅의 도구로 간주하는 경제적 관점에 대한 평형추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에서는 SNS를 포함한 온라인 기반 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동시대의 매체적인 상황과 문화를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SNS 내의 글쓰기가 발전해 온 과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SNS를 전통적인 일기문학이 계승되고 변형된 형태임을 밝히고, 이어서 SNS와 유사하면서도 좀 더 일기 장르에 근접한 블로그나 온라인 일기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일기문학에서 SNS로 그 특성이 이어져왔다는 본고에서의 주장은 세 부분

에 걸쳐 통시적으로 검토되며 그 타당성이 입증될 것이다. 첫 단락에서는 종이책, 즉 인쇄매체의 틀 안에서 일기문학작품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기의 전통적인 특징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날로그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일기문학의 유형들을 검토하며 매체의 전환이 일기의 특성변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로그와 SNS에서 글쓰기 특징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시대에 일기문학 장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기문학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는 이유는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일기문학만이 일반적인 일기와 달리 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SNS와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II. 인쇄텍스트로서의 일기문학

II.1. 일상적인 일기

일상적인 의미에서 일기의 특성으로 연대기성, 개인적인 주관성 그리고 진정성²⁾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특성이 처음부터 일기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일기가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 특징들이 발전되어 나왔고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전형적인 일기의 속성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연대기성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연대기적인 글쓰기는 르네상스 초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6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사를 365일로 구분하여 하루 단위로 기록하는 연감 형식과 결합되기에 이른다.³⁾ ‘하루’를 단위로 하는 이 형식은 일기의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17세기까지 일기의 연대기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일기

2) Vgl. Gero von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 Stuttgart 1989, S. 918.

3) Vgl. Sabine Gruber: Das Tagebuch. Ein Medium der Selbstreflexion Mainz 2008, S. 21.

의 또 다른 속성인 주관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기록이라는 일기의 또 다른 특성은 계몽주의가 시작된 18세기에 들어와서야 추가된 속성이다.⁴⁾ 근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주관성이야말로 한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는 일기라는 장르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일기의 개인적인 주관성은 진정성이라는 일기의 또 다른 특징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일기는 편지와 달리 원칙적으로 수신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가장 진정성이 있는 글쓰기 형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일기의 연대기성, 개인적인 주관성, 진정성은 결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와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특성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특히 일상적인 일기와 달리 일기문학은 허구적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수신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⁵⁾ 일상적인 일기를 정의했던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측면들이 많이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근대의 자아, 진정성, 선형적인 시간과 역사적인 진보 등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면서 이후의 일기문학작품들은 더욱 다양한 실험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일상적인 일기의 주요특성들, 즉 연대기성, 개인적 주관성 그리고 진정성을 파괴하는 실험적인 일기문학의 형태들을 살펴볼 것이다. SNS에서 발견되는 일기적인 요소들은 일상적인 일기보다는 이러한 일기문학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일기문학이 허구적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SNS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기문학과 SNS는 공통된 특징을 갖게 된다. 아래에서는 실험적인 일기문학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것이 일상적 일기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SNS로 이어질 수 있는 공통점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4) Vgl. Gruber: Das Tagebuch, S. 23.

5) Vgl. Gero von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 8. Auflage. Stuttgart 2001. 그리고 Dieter Burdorf u. a. (Hrsg.): Metzler Lexikon Literatur: Begriffe und Definitionen. Stuttgart. 2007. 문학작품으로 기획된 일기는 처음부터 이 일기를 읽을 독자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II.2. 일기문학

II.2.1. 연대기적 특성의 실험

일상적 일기와 일기문학은 ‘출판목적’의 여부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즉, 일기문학은 처음부터 출판을 목적으로 한다.⁶⁾ 바로 이점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및 SNS와 문학작품으로서의 일기가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다. SNS의 ‘친구들’과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일기문학에서의 ‘독자’는 모두 잠재적인 의사소통의 대상이자 글의 수신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간적인 구조에서 보면 두 매체 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타난다.

물론 일기문학은 일상적인 일기의 시간성, 즉 하루 단위의 글쓰기를 다양하게 변주시킬 가능성을 지닌다. 문학작품으로서의 일기는 전략적으로 시간성을 비롯한 일기의 다양한 형식 및 구조를 가지고 유희적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연대기적 시간 구조를 다양하게 변형시킨 일기문학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기를 독립된 문학 장르로 인식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로 막스 프리쉬를 들 수 있다. 그의 일기문학작품인 『1946-1949년 사이의 일기 Tagebücher 1946-1949』⁷⁾와 『1966-1971년 사이의 일기 Tagebücher 1966-1971』⁸⁾에서 프리쉬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과 사건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작품 구상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일기를 쓴다. 또한 이 일기는 매일 쓰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느슨한 시간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1966년도 일기에서 날짜는 단 한 번 기록되었을 뿐이며,⁹⁾ 1967년도에도 구체적인 날짜

6) Vgl. Der Brockhaus in fünf Bänden, fünfter Band, Sim-Zz, Mannheim 1994⁸⁾, S. 220: “Als relativ autonome literarische Texte können Tagebücher betrachtet werden, die schon im Hinblick auf eine spätere Veröffentlichung konzipiert (und damit oft stilisiert) sind; in ihnen ist das rein Private zurückgedrängt, oft stehen bestimmte Themen im Vordergrund (Kriegs-, Reisetagebücher, philosophische oder kunstkritische Reflexionen, zeitkritische Analysen u. a.)”

7) Max Frisch: Tagebücher 1946-1949. Frankfurt a. M. 1985.

8) Frisch: Tagebücher 1966-1971. Frankfurt a. M. 1979.

대신 2월, 4월달과 같은 대략적인 날짜 표시가 나온다든지, 6월 5일, 10일, 16일, 25일, 26일에 이어 10월 25일이라는 날짜가 표시되는 등 아주 불규칙적으로 일기가 작성된다.¹⁰⁾ 더욱이 날짜가 표시된 일기의 내용은 일종의 메모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오히려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일기보다 분량이나 의미면에서 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리쉬에게 일기는 사적인 의미보다는 제임스 조이스나 알프레드 뉘블린의 경우처럼 의식의 흐름을 기록해 나가는 일종의 문학적 서술 방식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프리쉬 스스로 창작일지에서 밝혔듯이, 그의 일기작품에서 사실적인 내용과 허구는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다.¹¹⁾ 또한 하이텐라이히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내 이름을 간텐바인이라고 하자 Mein Name sei Gantenbein』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프리쉬는 연대기적인 일기의 서술방식을 채택하여 이 특성을 문학적 형상화 방법으로 승화시키고 있다.¹²⁾ 이것은 프리쉬가 일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연대기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쉬가 일상적인 일기의 연대기적인 구조를 충실하게 따르지는 않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원래 연대기적 구성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크리스타 볼프의 『일 년에 단 하루 (1960-2000) Ein Tag im Jahr (1960-2000)』 (2003)¹³⁾ 역시 이런 연대기적인 특성을 따르면서도 일기문학의 실험적 특성에 맞는 특별한 시간구성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볼프가 1960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9월 27일이라는 같은 날 하루의 기록을 모은 것이다.

9) Frisch: Tagebücher 1966-1971, S. 62: "Zürich, Dezember 1966"

10) Frisch: a. a. O., S. 69, 86, 88, 89, 101.

11) Vgl. Kieser: Das Tagebuch als Idee und Struktur im Werke Max Frischs, in: Walter Schmitz (Hrsg.): Max Frisch. Materialien. Frankfurt a. M. 1987, S. 21.

12) Vgl. Sybille Heidenreich: Max Frisch. Mein Name sei Gantenbein. Montauk. Stiller. Untersuchungen und Anmerkungen. Hollfeld 1978, S. 126.

13) Christa Wolf: Ein Tag im Jahr 1960-2000. München 2003.

1960년 9월 27일 화요일¹⁴⁾

할레/ S., 암젤베크

잠에서 깨자마자 든 생각. 이날이 또 다시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지날 거야. 텅카의 끔찍한 다리 때문에 병원에 가야할 것만 같다. 밖에는 문이 덜컹거리고 있다. 아이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나보다. 게르트는 아직 자고 있다. 게르트의 이마가 축축하다. 하지만 더 이상 열이 나지는 않는다. 독감고비를 넘긴 듯 보인다.

이렇게 매년 9월 27일에만 기록한 볼프의 일기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자전적 기록이며, 동시에 동서독 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¹⁵⁾이기도 하다. 여기서 볼프의 일기를 독창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일 년 중 단 하루’라는 시간성이다. 그러나 이 설정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규칙을 40년 동안 이어왔다는 그 연속성일 것이다. 볼프 스스로도 수십 년을 이어온 일 년 중 단 하루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삶의 이력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¹⁶⁾ 40년간 지속된 연대기적인 일기가 매년 동일한 하루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일기문학작품의 실험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 Wolf: Ein Tag im Jahr 1960-2000, S. 9: “Dienstag, 27. September 1960, Halle/S., Amselweg, Als erstes beim Erwachen der Gedanke: Der Tag wird wieder anders verlaufen als geplant. Ich werde mit Tinka wegen ihres schlimmen Fußes zum Arzt müssen. Draußen klappen Türen. Die Kinder sind schon im Gange. Gerd schläft noch. Seine Stirn ist feucht, aber er hat kein Fieber mehr. Er scheint die Grippe überwunden zu haben.”

15) Vgl. Wolf: a. a. O., S. 41: “Ins Gespräch kommt überraschenderweise die Frage, was uns eigentlich, ganz konkret, in der DDR hielt (und hält), da so viele weggingen. (Diese Frage ist ja nun auch zu einem Unterton in meiner Erzählung geworden.) Im Negativen sofort zu beantworten: Man weiß, was »drüben« gespielt wird, und daß man da nicht hingehört.”

16) Vgl. Wolf: a. a. O., S. 9: “Irgendwann, unbemerkt von uns, verwandeln diese Alltags sich in gelebte Zeit. In Schicksal, im besten oder schlimmsten Fall, Jedenfalls in einen Lebenslauf.”

II.2.2. 개인적인 주관성의 기록에서 공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일기는 개인의 내밀한 기록이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출판을 염두에 둔 일기문학의 경우는 다르다. 토마스 만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일기의 연대기적인 성격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일기에서 주고받은 편지나 전화내용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온 손님들 그리고 자신의 동성애 성향까지 아주 상세하게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반면 『죽음 Der Tod』¹⁷⁾ (1897)은 자신의 사적인 일기와는 다른 허구적인 문학작품이다. 여기서는 이 작품을 토대로 토마스 만이 일기의 특성 중 하나인 개인적인 주관성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활용하는지 검토해 보겠다.

이 작품은 40세가량의 한 백작이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자신이 예견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보내는 15일 가량의 시간을 기록한 허구적 소설이다. 백작은 마치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을 기록하듯 행복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의 열두 살짜리 딸에 대해 그리고 예정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여러 감정들을 기록하고 있다. 독자는 마치 죽음을 앞둔 백작의 일기를 들춰보며 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관음적으로 공유한다.

이 허구적인 일기는 개인의 내밀한 심리를 보여주며 일기의 개인적인 주관성이라는 특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일기의 내용이 사실인 듯한 인상이 생겨난다. 독자는 백작이 죽는 날에 대한 일기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견된 날 죽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¹⁸⁾ 죽은 사람이 일기를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러한 열린 결말은 백작이 실제로 이 일기를 작성한 것 같은 인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토마스 만이 자신의 일기문학에서 부각시킨 것은 일기의 개인적 주관성이라는 특징이다. 그런데 일기문학이 반드시 개인의 내면 심리와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발터 켐포브스키 Walter Kempowski는 공적

17) Thomas Mann: Sämtliche Erzählungen, Band 1. Frankfurt a. M. 1987, S. 59-65.

18) 작품의 주인공인 백작은 자살 하루 전인 10월 11일 23시 딸의 시신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일기를 쓰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고 역사적인 기록 장르로 일기를 작성한다. 그는 『음향고도계. 집단적 일기 Das Echolot. Ein kollektives Tagebuch. 4 Bände』¹⁹⁾라는 연감을 1993년부터 2005년까지에 걸쳐 출간하였다. 그는 1980년대 초반에 평범한 사람들의 자전적인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디 차이트 Die Zeit>지에 광고를 낸다. 그는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보낸 각종 일기와 주고받은 편지 및 살아있다는 표식을 적은 글과 사진을 모아 1993년도에 일기모음집으로 처음 출판한다. 그 후 1999년에는 『음향고도계. 격노한 푸가. 1945년 겨울의 집단적 일기 Das Echolot. Fuga furiosa. Ein kollektives Tagebuch Winter 1945』라는 타이틀로, 2002년에는 『음향고도계. 바르바로사 41. 집단적 일기 Das Echolot. Barbarossa '41. Ein kollektives Tagebuch』 그리고 2005년에는 이 음향고도계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음향고도계. 마지막 노래 '45. 집단적 일기 Das Echolot. Abgesang '45. Ein kollektives Tagebuch』가 각각 출판된다.

캠포브스키가 개인적으로 모은 수많은 자료들은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자전적인 일기나 편지 그리고 사진과 같은 것들이다. 그는 이 자료들을 별다른 논평 없이 연대기적으로 몽타주했다.²⁰⁾ 그러나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작업은 그동안 자전적인 개인적인 기록으로만 인식되던 일기문학을 일종의 공적인 기록물로 확대시키는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캠포브스키가 나열한 역사적 기록물들이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연대기적으로 편집한 기획의도에서는 작가의 주관성이 드러난다. 그는 몽타주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며 역사적 기록을 배열하고 편집한다. 이 경우 연대기적인 자료 병렬 방법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일상다큐멘터리 모음집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강조하면서도 작가의 주관성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일기

19) Walter Kempowski: Das Echolot. Ein kollektives Tagebuch. 4 Bände. Berlin 1993.

20) Vgl. Kempowski: Das Echolot. Barbarossa '41. Ein kollektives Tagebuch. München 2002, S. 9~14. 예를 들어 이 기록집의 첫 장인 1941년 6월 21일자에는 앙드레 지드와 폴 발레리를 포함한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록 (편지 및 일기를 포함하여) 이 편집되어 있다. 민스크에서 찍은 사진도 14쪽에 등장함으로써 이 기록집에는 편지나 일기와 같은 기록은 물론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집에서도 자료는 철저하게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문학의 특성을 보존한다.

이러한 공적인 역사적 기록물로서 일기를 만들어내는데 캠프보스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핏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그는 집단적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도 특정한 관점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고 배열함으로써 일기의 주관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캠프보스키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기가 지닌 주관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적이고 집단적인 기록물로서의 새로운 일기 유형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II.2.3. 자전적 일기의 허구성

통상 ‘자전적인 허구’는 사실성의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토마스 만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일기 외에 편지형식으로도 1인칭 서술자를 내세워 자전적인 허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 허구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전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로베르트 발저 Robert Walser (1878-1956)와 볼프디트리히 슈누레 Wolfdietrich Schnurre (1920-1989)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교양소설로 간주되는 『야콥 폰 군텐 Jacob von Gunten』(1909)의 작가 로베르트 발저는 모든 허구적인 글쓰기의 토대가 자전적인 일기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일기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꾸며낸 허구이며, 모든 허구적인 문학 적 글쓰기는 바로 이 자전적인 허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발저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사적인 일기를 썼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종종 일기형식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야콥 폰 군텐』과 『일기-1926년의 단상 <Tagebuch>-Fragment von 1926』(1927)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연구자들에 의해 종종 일기 장르에 분류되곤 하는 『야콥 폰 군텐』은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일기로 간주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의 소지가 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저가 1926년도 4월 달력 뒷장에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은 까닭에 『일기-1926년의 단상』²¹⁾이라는 제목을 얻게 된 작품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수많은 상투어들과 각종 매체에서 읽은 것들을 마치 음악에서 샘플링하듯이 모아놓거나 인용해 놓은 상당히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발저는 이 일기문학에서 교양소설은 물론 잡지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에 실린 자신의 글을 재인용하며,²²⁾ 더 나아가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인용 출처는 명시하기도 하고 암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샘플링과 재인용 외에도 타인의 텍스트들을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일기 내용 속에 엮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단지 형식만을 모방하기도 한다. 이 『일기-1926년의 단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나는 거의 일 년 간 아주 괴상한, 사실은 좀 웃긴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런 책들을 아주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이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독서로부터 나만의 이야기 즉, 뭔가 익살맞고, 위트 있으며 나와 관련된 것, 만족할 만한 것, 시시덕거릴만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였다.²³⁾

자전적 글은 개인의 고유한 흔적을 드러내지만 샘플링이나 재인용과 같은 기법은 그러한 개인의 고유한 내면적 주관성을 다시 파괴한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타인의 글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마저도 재인용을 통해 다른 맥락으로 들어옴으로써 낯선 타인의 글과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매체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개

21) Robert Walser: Sämtliche Werke in Einzelausgaben, Bd. 18, Zarte Zeilen. Prosa aus der Berner Zeit. Hrsg. v. Jochen Greven. Frankfurt a. M. 1926.

22) Vgl. Barbara Potthast: «Moderne Souveränität aus Schönheit und Wahnsinn. Bayernkönig Ludwig II. in Robert Walsers Prosaminiatur «Der Kostbare»», in: DVjs 81 (2007), S. 109-135.

23) Walser: Sämtliche Werke in Einzelausgaben, Bd. 18, Zarte Zeilen. Prosa aus der Berner Zeit. S. 75f: “Ich hatte mir nämlich etwa ein Jahr lang zur sehr merkwürdigen, eigentlich ein bißchen komischen Gewohnheit gemacht, erstens solche Bücherchen sehr eifrig zu lesen und zu studieren, um unmittelbar darauf und zweitens aus dem Gelesenen eine eigene Erzählung, d.h. irgendwelches Possierliches, Witziges, Selbstisches, Vergnügtes, Tändelndes herauszuholen.”

인 블로그가 자료수집과 인용으로 구성되거나,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재인용(리트윗)을 통해 개인적인 선별취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면은 발저의 일기와 SNS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발저의 일기문학이 지닌 현대성을 드러내준다.

독일에서 보기 드물게 단편작가로서 성공한 볼프디트리히 슈누레의 경우도 자전적인 일기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작품 『그림자 사진가 Der Schattenfotograf』(1978)²⁴⁾는 얼핏 보기에 글쓰기에 관한 성찰과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 새로 구상한 작품에 관한 메모, 1970년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논평, 자연을 관찰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섞어놓은 메모장 같은 작품이다. 자전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아니다. 슈누레의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자신의 아버지와 보낸 유년시절이나 전쟁체험, 1년간 앓았던 병에 관한 이야기, 고통스럽게 병과 싸우며 보낸 시간과 아내의 자살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두 번째 결혼과 아이 입양, 새 가정에 대한 이야기²⁵⁾ 자신의 글쓰기에 관한 자전적인 내용은 이 작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작품은 아포리즘을 비롯하여 시²⁶⁾, 미완성 이야기, 허구적인 편지 형식 그리고 몽테뉴나 막스 프리쉬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혼자 묻고 답하기 형태의 문구들²⁷⁾을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의 푸들개 알리가 쇼펜하우어의 푸들개 아트마와 나누는 철학적 내용의 대화도 나온다.²⁸⁾ 그 밖에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쓰다 내버려둔 소설 문구를 재인용한다든지 이야기 줄거리를 정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파편성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첫 장의 1976년 8월이라는 시간과 1977년 1월 10일과 같은 날짜표시는 이 작품이 일기 장르에 속함을 알려준다.

24) Wolfdietrich Schnurre: Der Schattenfotograf. Berlin 2010.

25) Vgl. Mathias Adelhoefer: Wolfdietrich Schnurre: ein deutscher Nachkriegsautor. Pfaffenweiler 1990.

26) Vgl. Schnurre: Der Schattenfotograf, S. 64-66.

27) Vgl. Schnurre: a. a. O., S. 90-92.

28) Vgl. Schnurre: a. a. O., S. 309-310.

발저와 슈누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주관성은 문학적으로 고안된 허구일 뿐이다. 이 두 작가는 포스트모던적인 상호텍스트성을 사용하여 진정성이라는 일기의 특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일기문학에서 보여주는 상호텍스트적인 인용의 글쓰기는 현대의 SNS로까지 이어지면서 현재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Ⅲ. 아날로그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일기문학

Ⅲ.1. 연대기성 파괴와 상호매체성의 활용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독일에 유입되기 시작했던 포스트모더니즘과 미국 팝문화는 독일작가 로프 디터 브링크만 Rolf Dieter Brinkmann (1940-1975)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 팝문학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는 브링크만은 특히 ‘경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 레슬피 피들러의 요구를 따랐다. 팝문학작가로서 그는 활자매체로서의 문자텍스트를 넘어서 상호매체적인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가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문학을 선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의 일기문학 작품 두 편을 중심으로 매체전환기의 일기형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1960년대에 팝문학을 독일에 본격적으로 소개했던 브링크만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 1960년대에 가졌던 팝문화 긍정을 통한 대중문화의 전복적 기능에 회의를 표하면서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반영한 1970년대의 작품 중에서 『서쪽으로 1&2 Westwärts 1 & 2』를 제외한 다른 세편은 모두 유고작품들이다. 그가 소설로 출판하기 위해 모아놓은 ‘자료집 Materialbände’을 토대로 하여 『로마, 시선들 Rom, Blicke』은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두 편의 다른 작품인

『저항을 위한 감정을 섬세하게 하기 위한 탐색. 저항/폭력/살인. 여행 시간 매거진. 스토리는 재빨리 이야기된다. Erkundungen für die Präzisierung des Gefühls für einen Aufstand: Träume. Aufstände/ Gewalt/ Morde. Reise Zeit Magazin. Die Story ist schnell erzählt』(1987)²⁹⁾와 『컷 Schritte』(1988)³⁰⁾은 일기모음집으로 출판된다. 아래에서는 일기형식을 띠고 있는 브링크만의 작품 두 편을 중심으로 매체 전환기에 나타난 실험적 일기문학의 변화된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브링크만은 위의 두 일기문학작품에서 선형적인 시간관을 문제시하고, 이것을 활자매체의 한계와 연관 짓는다. 『컷』에서 문자의 형상성을 강조하고, 텍스트와 사진이미지를 찢어 붙이는 브리콜라주 형태를 선보인다. 또한 그는 낱짜를 뒤섞어 시간의 선형성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시간 단위를 아예 하루가 아닌 분이나 초 단위로 나누는 실험을 하기도 한다.³¹⁾ 이를 통해 그는 현재의 직접적 순간을 포착하기 힘든 문자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기형식의 연대기적 특성을 파괴한다. 브링크만의 이러한 비판과 실험은 그가 활자매체에서 멀티미디어적인 디지털매체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대의 사고를 선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의 또 다른 일기문학작품인 『탐색』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1971 메모’라는 제목 아래 52장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기 모음집에 비해 분량이 적은 편이다. 2부는 57쪽부터 182쪽까지 이어지며 전체가 126쪽에 달할 정도로 호흡이 길다. 3부는 188쪽에 달하는 분량 외에 포스트모던적이고 장르파괴적인 형식실험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1973년 5월 5일, 쾰른’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4부는 상당 부분이 사진이미지의 콜라주로 이루어져있다.

29) Rolf Dieter Brinkmann: Erkundungen für die Präzisierung des Gefühls für einen Aufstand: Träume. Aufstände/ Gewalt/ Morde. Reise Zeit Magazin. Die Story ist schnell erzählt. Reinbek bei Hamburg 1987.

30) Brinkmann: Schritte. Reinbek bei Hamburg 1988.

3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최은아. 폴프 디터 브링크만의 『컷』에 나타난 형식적 기법 연구. 실린 곳: 카프카연구 (2011) 247-280쪽.

브링크만이 전작 『로마, 시선들』에서 수취인을 상정한 편지형식에 독백조의 자전적이고 선형적인 문체를 사용했다면, 『탐색』에서는 일기의 장르내재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여러 형식기법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눈에 띈다. 1부는 “1971년 9월 27일 월요일 Montag, 27.9.71”³²⁾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기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개인적인 주관성’을 문제시하는 문장들이다. “나는 17살이었고 진짜였다. Ich war siebzehn und war wirklich”라는 문장에서 “정말 나였다 Ich war wirklich”라는 문장만이 굵게 표시되어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일기라는 형식에는 나라는 글 쓰는 주체가 등장하고 그가 자신의 관심과 내면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처럼 텍스트의 저자가 브링크만이 것이라는 기대는 같은 쪽에서 세 번이나 변형되며 등장하는 “정말 내가 아니었다. WIRKLICH WAR ICH NICHT”³³⁾에서 깨지게 된다. 이러한 장치들 통해 일기의 주체가 브링크만이 것이라는 가정은 의문시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자전적인 기록으로서의 일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전적인 글에서 보이는 개인의 고유한 흔적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인용하며 컷업 및 콜라주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파괴되고, 고유한 내면적 주관성보다는 오히려 낯선 타인의 글과 같은 느낌이 전달된다.

2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기의 선형성을 파괴하는 형식기법이다. 1971년 9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쓴 일기를 모아놓은 이 부분에서 날짜는 선형적인 흐름에서 벗어난다. 사실 이 작품이 일기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날짜이다. 그런데 브링크만은 일반적인 일기에서와 달리 텍스트 어딘가에 날짜를 오려붙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2부가 시작되는 57쪽에 처음 등장하는 날짜는 ‘1971년 9월 30일 목요일 30. Sept. 1971, Donnerstag’로 인쇄체로 문장 처음에 등장하여 통상적인 일기느낌을 준다. 그러나 ‘1971년 10월 25일 타임지 TIME, OCTOBER 25, 1971’³⁴⁾ 표시는 타임지에서 오

32) Brinkmann: Erkundungen für die Präzisierung des Gefühls für einen Aufstand, S. 7.

33) Brinkmann: a. a. O., S. 25. ‘나’를 변형한 모든 문장은 이 25쪽에서 인용.

34) Brinkmann: a. a. O., S. 137.

러내 붙인 것으로 그나마 찾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날짜표시는 문단 한 가운데 느닷없이 등장하며 날짜 전후에 내용변화도 없다. 따라서 날짜의 기능은 통상적인 하루단위의 성찰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나 2부에서는 날짜가 아직 연대기적이고 순차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브링크만은 하루를 중심으로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기록한다는 일기의 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브링크만이 시간 단위를 하루가 아닌 시간별로 쪼개기 시작하는 것은 3부에서부터이다. “금요일 밤 4시 35분 잠자리에 들었다. Freitagnacht, 1/5 nach 1/2 Fünf zu Bett”.³⁵⁾ 이러한 경향은 일기를 분이나 초 단위로 자동 기록하는 지금의 전자매체의 글쓰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일기 속 날짜를 연대기적이거나 순차적인 흐름에서 과격적으로 떼어내거나 뒤섞는 것은 다음 작품인 『컷 Schnitte』(1988)에 들어와서이다. 『탐색』에서만 해도 아직 회상장면이 많이 등장하며, 날짜를 통해 글을 쓰는 지금인 현재를 강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컷 Schnitte』(1988)에서는 『탐색』에서 그동안 타진하던 콜라주 기법을 비롯한 여러 형식 기법이 과감하고도 혁신적으로 사용된다. 브링크만은 이를 통해 컷업과 스냅샷, 우의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순차적인 하루의 기록, 자전성, 서사적 맥락, 과거중심의 글쓰기 등 그동안 일기에 부여되었던 모든 속성을 파괴시킨다.³⁶⁾

이 논문에서는 특히 활자 매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기형식을 파괴하는 실험을 했던 브링크만을 발저와 슈누레의 뒤를 잇는 동시에 다음에 다룰 피츠 사이에 놓고 있다. 발저와 슈누레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브링크만은 또한 1990년대의 작가들에게는 선구자로서 하나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일기에 대한 인식은 물론 활자에 대한 인식에서도 브링크만은 활자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대의 사고유형을 대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35) Brinkmann: a. a. O., S. 187.

36) 각주 35번 참조하십시오.

III.2. 온라인 일기를 통한 현재 포착

브링크만이 아날로그 매체인 활자의 한계를 인식하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다른 아날로그 매체를 활용하였다면, 그와는 달리 1990년대 팝문학작가인 라이날트 괴츠 Rainald Goetz는 다른 목적을 위해 디지털매체 시대에 온라인 일기라는 형식을 사용한다. 그는 1년 간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일기형식으로 인터넷에 올린 후 나중에 이를 모아 『모든 이를 위한 쓰레기 *Abfall für alle*』(1999)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한다.

괴츠는 자신의 초기 작품에서 활자매체의 형상성에 주목하거나 문자와 이미지를 모두 활용하는 텍스트를 많이 썼지만, 그의 온라인 일기 『모든 이를 위한 쓰레기』는 오로지 문자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괴츠가 온라인 일기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의외로 보인다. 괴츠는 자신의 온라인 일기에서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는데, 이러한 ‘자폐증적인’ 글쓰기는 전통적인 엘리트적 글쓰기의 형태를 취한다.

팝문학작가로서 괴츠는 온라인 일기를 통해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엘리트작가의 위치를 보전한다. 동시에 그는 컴퓨터의 상호매체적인 특성보다는 빠른 속도에 주목하며, ‘현재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한다. 괴츠가 포착하고자 하는 ‘현재’는 탈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인 시간 개념에서 보면 모든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형적인 시간 구조 안에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컴퓨터와 같은 기술영상이 주도하는 시대에는 과거를 현재에 불러낼 수 있고 가능한 것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현재는 미래의 실현이 된다. 이러한 탈 역사적인 시간개념으로 보자면 일기를 쓰는 현재라는 시간은 괴츠에게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선형성을 파괴하는 개념인 것이다.³⁷⁾

37)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두 논문을 참조하시오. 최은아. 라이날트 괴츠의 『모든 이를 위한 쓰레기』 분석. 실린 곳: 카프카연구 (2010), 151-178쪽. 그리고 Hang-Kyun Jeong: Ästhetik des Abfalls. Eine Überlegung zu *Abfall für alle* von Rainald Goetz. In: Wirkendes Wort 61 (2011), S. 259-272.

이 점에서 피츠는 일기의 시간성과 활자의 선형성을 연계시킨 브링크만과 달리, 일기의 현재성을 탈 역사시대의 시간개념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의 서술은 전통적인 연대기적 일기에서 온라인 일기로의 형식전환을 야기한다. 특히 그가 브링크만처럼 하루 단위가 아닌 분과 초 단위로 매 순간 생각나는 바를 쓴 것과 관련하여 그의 일기에서 현재라는 순간은 다른 아닌 동시대의 SNS의 글쓰기 방식인 스냅샷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IV. 디지털 매체시대의 새로운 일기 유형

활자매체시대에서 매체전환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글쓰기 단계에서는 어떠한 글쓰기 형식 및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번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SNS는 다양한 인터넷 기반 글쓰기 중 가장 최근에 선보인 형태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글쓰기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온라인 일기와 블로그이다. 본고에서는 SNS가 이 단계를 거쳐 좀 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글쓰기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먼저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를 살펴본 후 SNS에 나타난 글쓰기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IV.1.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

인터넷 매체에 온라인 일기를 작성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서작성체계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 유형의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만들어진 창에 하루 동안의 일을 기입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데, 자동적으로 텍스트에 날짜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작 페이지가 공개된다. 인터넷에 올리는 온라인일기나 블로그는 일기문학처럼 개인

의 주관성을 모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공개된다. 개인의 주관성을 모방하지만 사실은 공적인 특성을 지니는 점과 선형적인 시간성은 인터넷 기반 일기 및 블로그와 일기문학을 이어주는 공통점들이다.

블로그와 일기문학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예로 피츠의 블로그 기반 작품 『소송 Klage』(2008)을 들 수 있다. 피츠는 2007년부터 <베너티 페어 Venity Fair>라는 잡지에 개인 블로그 란을 운영했는데, 이 블로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펴낸 것이 바로 『소송』이다. 피츠는 여기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위한 용도로만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였고,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되는 하이퍼링크나 논평 혹은 댓글 란은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았다. 블로그 공간에서 의사소통 부분은 철저히 제외하고 오직 ‘현재’라는 시간만을 취한 것이다. 전체 공개 형태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공감과 의사소통을 위한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기문학을 아날로그형태에서 디지털로만 바꾼 것이다. 피츠의 블로그는 하루를 단위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하에 주관성을 모방하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 일기 유형이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매체의 상호텍스트성을 제외시킨 이 형태의 글쓰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가는 가이다. 같은 해에 그의 후속작 『마구 지껄이기 Loslabbern』(2008)가 출간되었다. 이 작품에서 피츠는 그동안 선보였던 스냅샷 형태의 글 형태 대신에 쉼표와 마침표마저 사라진 아주 긴 산문형식을 사용했다.³⁸⁾ 스냅샷에서 산문으로의 후퇴는 한국에서 인터넷일기나 블로그 형태가 미완결, 파편형태, 이모티콘을 통한 이미지성이 강조된 글 형태로 변화해 간 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츠는 이미 1999년에 온라인 일기라는 매체를 선구적으로 활용하며 현재시간에 대한 탈경계적인 인식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가 소셜미디어의 시대인 2000년대 들어 거의 10여 년이나 침체를 겪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온라인 일기 작가이면서도 대중과의 소통

38) Vgl. Rainald Goetz: loslabbern. Frankfurt a. M. 2009, S. 15-16: “ich hatte in den Tagen zuvor diesbezüglich einige Notizen [...] Urgruende der Textmotorik zurueckzukehren.” 예를 들어 15쪽부터 16쪽에 걸쳐 계속되는 한 문장은 16쪽 제일 밑의 문장에서 : 표시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을 원치 않았던 그의 엘리트적인 글쓰기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매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츠는 스스로를 “순간을 기록하는 연대기 기록자 Chronist des Augenblicks”³⁹⁾로 인식할 만큼 매체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의 사용가능성을 활용하는 데는 선구적이었지만, 대중과의 상호교류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글쓰기 도구로만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결정적인 한계이자 모순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이처럼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인 SNS를 통해 다수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독백형태의 글쓰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는 다른 형태의 블로그도 충분히 가능하다. 독일 문학 블로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블로그 중의 하나인 알반 니콜라이 헤르프스트는 Alban Nikolai Herbst는 피츠의 블로그 운영과는 정반대의 예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자체를 마치 사이버네틱 소설처럼 이해한다.⁴⁰⁾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로 분류되는 헤르프스트는 자신의 이름을 딴 www.albannikolaiherbst.twoday.net⁴¹⁾ 라는 사이트에 ‘정글. 다른 세계 Die Dschungel. Anderswelt’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2004년부터 문학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 피츠의 블로그와는 달리 원하면 누구든지 논평할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구조를 지닌 블로그 형태이다. 이 블로그에는 “논평작성 Kommentar verfassen”란을 비롯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까지 링크되어 있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그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헤르프스트는 모든 논평에 적극 댓글을 달며 방문객과 의사소통하고 있는데, 2012년 6월 22일자 그의 블로그 글에는 헤르프스트 자신의 댓글을 포함하여 60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왔다. 스스로 ‘소설’이라 부르는 그의 블로그 글에는 자전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이 혼재한다. 특히 시간성과 공중성 그리고 허구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헤르프스트 블로그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한 일기문학소설의 유형을 구현하는 좋은 예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9) Goetz: Abfall für alle. Roman eines Jahres, Frankfurt a. M. 1999, S. 833.

40) Vgl. Alban Nikolai Herbst: Kybernetischer Realismus. Heidelberger Vorlesungen. Heidelberg 2008.

41) <http://albannikolaiherbst.twoday.net/>

IV.2. SNS 상의 글쓰기

대다수의 연구서들에서는 SNS 상의 글의 특징을 간결성으로 보고 있다.⁴²⁾ 그러나 아포리즘이나 에세이 형식의 글도 간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실 SNS 상의 글쓰기를 다른 여타 장르의 문학적인 글들과 확연하게 차별화시키면서 독창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간결성이 아니라 글에 수반되는 시간표시이다. 독백형태의 편지형식이나 일기를 제외하고 자신의 글에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문학 장르는 없다. 따라서 이 시간 표시야말로 일기문학과 SNS를 서로 연결시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SNS에서 시간표시가 한편으로는 아날로그적인 일기의 선형성을 모방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초 단위까지도 세세하게 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하루단위의 일기에서 크게 벗어나기도 한다.

일기와 SNS는 글의 성격도 유사하다.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을 독백이라 하고, 남이 들도록 말하는 혼잣말을 방백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인터넷식의 글들이 갖는 특징이다. 인터넷의 글은 이런 점에서 독문(獨文), 방서(傍書)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⁴³⁾ 물론 글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인쇄활자로 쓰인 독백구조의 일기를 읽는 방법과 가상공간의 전자 활자를 읽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 낡은 매체라 할 수 있는 인쇄 활자와 새로운 매체라 할 수 있는 전자 활자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내용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두 매체는 “한 방향과 쌍방향, 통제성과 자율성, 가치지향성과 가치중립성, 분절식과 연속식, 마감을 지켜야 하는 쪽과 (dead line) 24시간 연결해야 하는 쪽 (always on)”⁴⁴⁾으로 구분된다.

일기와 유사하면서도 변별적인 또 다른 특징은 SNS와 같은 매체 속 시간이 근대의 선형적인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현재로 환원시키는 포스트모던적인 시간이라는 점이다. 브링크만이나 괴츠가 온라인일기에서 ‘현

42)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수용자 연구회: 소셜미디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93쪽. “소셜미디어의 언어표현방식-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43) 임문영: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교보문고 2012, 209쪽.

44) 임문영: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205쪽.

재'라는 테마에 집중한 것은 두 매체의 글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집중되는 전자 활자의 독해방식을 인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막 지금 gerade eben jetzt”⁴⁵⁾으로 요약되는 이 시간특징은 매체전환기보다 2012년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플리커(flicker), 요즘(Yozm)과 같은 실시간 의사소통 매체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SNS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에 따른 글의 양태와 시간표시는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일례로 블로그 형식과 페이스북 형식에서는 시간표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페이스북보다 전에 등장한 블로그의 경우에는 글을 올린 순간이 최종시간으로 표시되는 반면, 페이스북은 몇 초 전에 글을 올렸고 글을 올린 후 몇 초가 지났다는 것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댓글을 다는 경우 enter를 친 후 ‘1분 전’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심지어 ‘수정’의 경우에는 자신이 쓴 글을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알려진다. 자신이 올리는 모든 글과 사진이 미지, 댓글과 수정하는 행위마저 반드시 그 행위가 ‘현재’를 기점으로 얼마 전에 일어났는지가 표시되는 것이다. 즉, 비교적 신생 SNS라 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서는 다른 SNS에서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보여준다. 그러나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가 표기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근대에서와는 달리 현재를 더욱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은 글의 형태에서도 구분된다. 블로그가 여전히 문자의 의미전달 기능에 충실한 반면, 페이스북에서는 스냅샷 형태의 글이 주를 이룬다. 블로그가 아포리즘과 시, 생각의 단상, 미완결 에세이 등 온갖 형태의 글을 모아놓은 몽타주와 같다면, 페이스북은 차라리 사진이미지를 조각조각 잘라놓은 콜라주에 가깝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문자수의 제한, 즉 트위터에서는 140자, 페이스북에서는 길어지는 글은 ‘노트’라는 항목에 따로 기록하는데서 알 수 있다.

45) Vgl. Eckhard Schumacher: Gerade Eben Jetzt. Schreibweisen der Gegenwart. Frankfurt a. M. 2003.

“트위터는 지난 2006년 7월 미국에서 이반 윌리엄스(Evan Williams)등이 휴대전화의 SMS를 웹과 결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블로그로 탄생하였고 글자 수는 140자로 제한된다. 한번에 업로드되는 메시지의 길이가 140자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만을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순기능을 발휘하였다.”⁴⁶⁾ 흥미로운 점은 트위터에서 긴 메시지를 축약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비틀리(<http://bit.ly>)와 같은 서비스인데, 긴 메시지나 긴 링크를 짧게 줄여 주는 기능을 통해 짧아진 게시물을 올리게 되며 비틀리의 링크가 담긴 트윗은 긴 메시지나 링크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트위터에서는 ‘의미전달기능’이, 페이스북에서는 ‘의사소통기능’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문자가 의미전달 기능이 아닌 문자 자체의 이미지성에 집중되는 현대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문자에 비해 사진이미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블로그 글을 인쇄활자로 출판한 피츠처럼 트위터에 올린 글들도 마찬가지로 인쇄활자로의 매체전환이 수월해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외수의 『하악하악』과 최재성의 『우리 지금 만날까요?』 등이 트위터 글을 바탕으로 출판된 책이다. 이외수의 글에서는 트위터의 글이 책 형태로 출판되면서 트위터에 기록되었던 시간은 삭제되었고 원래 SNS가 지녔던 글의 파편성도 교정되는 등 매체전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2012년에 출판된 최재성의 글에서는 시간기록은 물론 140자 내에서의 댓글이 그대로 옮겨져⁴⁷⁾ 트위터 상의 글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아직 SNS를 통한 글쓰기를 매체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인문학계의 시도는 상당히 미비하다. 그러나 새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SNS 중에서는 인문학 쪽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다. 미디

46) 임문영: 같은 책 참조.

47) 최재성: 우리 만날까요? 최재성의 유쾌한 SNS소통. 나무와 숲 2011, 154쪽: “아!! 축구 탓에 흔들렸던 발톱이 빠졌다. 앓던 이 빠진 심정과 같겠지?-빠진 발톱 목격 못하신 분을 위하여 무리한 것 합니다. ㅎㅎ 즐감하세요?^^ (2012.11.16)

↓

골고루

아 ...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네요. 굳이 찾아서 본 나는 도대체 뭘미?”

어레가 출범시킨 잇글링 (itgling)이 그것인데, 이것은 놀이와 인맥확장을 결합시킨 SNS이다. 잇글링은 ‘글 이어쓰기’를 통해 사용자간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프로파일 중심의 관계 맺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내 글을 위, 아래, 옆으로 이어 쓰다 보면 아는 사람이 생기고 특정 주제를 주도하는 주요인물(허브)이 생긴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와 네트워크, 인맥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쓴 글은 미디어레가 자체 개발한 시맨틱 (semantic) 웹기반 시스템으로 분석되어 사용자에게 연결고리가 깊은 다른 사용자를 추천해 준다. 조회수, 추천수가 아니라 글이 연결된 방식에 기반을 두고 추천해 주는 게 특징이다. 이어 쓴 글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져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잇글지도’ 기능도 갖췄다.⁴⁸⁾ 하이퍼텍스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결합된 이러한 SNS는 인쇄활자를 벗어난 문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V. 결론

문학은 단순히 매체발전을 추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문학형태를 창출해왔다. 사진의 발명이 미국에서 단편소설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데서 알 수 있듯이, SNS와 같은 새로운 매체와 문학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금 SNS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단연 경제 및 경영분야이다. 물론 현상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시도는 주로 SNS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실용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매체학적이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새로운 매체 상의 글쓰기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의외이다.

SNS에서 일기 장르와의 연속성을 찾는 이 연구는 여러 어려움도 안고 시

48) 임영호/ 김은미/ 이동후/ 정일관: SNS 혁명의 신화와 실재. 나남 2011, 54-55쪽 참조.

작되었다. 일기문학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연구한 체계적인 연구서가 희박하다는 점과 두 매체 간의 접점을 연구한 인문학적 연구서가 희박하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일기 형식으로 된 문학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기의 형식적 특성들이 끊임없이 변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기문학 장르의 변화양상을 그 생성시점부터 최근까지 통시적이면서도 유형학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기의 발전사를 조망하기 위해서였다.

일기문학을 유형학적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독일문학의 장르론 분야에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문학을 비단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책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SNS와 같은 최신 의사소통매체에서도 발견함으로써 문학과 다른 매체의 상호영향관계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SNS를 아날로그적인 일기문학의 특성들이 변화 및 확장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새로운 의사소통매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체의 발전이 문학형식 및 전통적인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SNS가 일기문학의 어떤 특징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이 연구를 통해 일기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새로운 매체와 전통적인 문학 장르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임문영: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교보문고 2012.
- 임영호/ 김은미/ 이동후/ 정일권: SNS 혁명의 신화와 실재, 나남 2011.
- 최은아: 볼프 디터 브링크만의 『컷』에 나타난 형식적 기법 연구, 한국 카프카 학회 2011.
- 최은아: 라이날트 괴츠의 『모든 이를 위한 쓰레기』 분석, 한국카프카학회 2010.
- 최재성: 우리 만날까요? 최재성의 유쾌한 SNS소통, 나무와 숲 2011.
-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수용자 연구회: 소셜미디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Brinkmann, Rolf Dieter: Erkundungen für die Präzisierung des Gefühls für einen Aufstand: Träume. Aufstände/ Gewalt/ Morde. Reise Zeit Magazin. Die Story ist schnell erzählt, Reinbek bei Hamburg 1987.
- Brinkmann, Rolf Dieter: Schnitte, Reinbek bei Hamburg 1988.
- Burdorf, Dieter u.a. (Hrsg.): Metzler Lexikon Literatur: Begriffe und Definitionen, Stuttgart 2007.
- Frisch, Max: Tagebücher 1946-1949, Frankfurt a. M. 1985.
- Frisch, Max: Tagebücher 1966-1971, Frankfurt a. M. 1979.
- Goetz, Rainald: Abfall für alle. Roman eines Jahres, Frankfurt a. M. 1999.
- Goetz, Rainald: loslabbern, Frankfurt a. M. 2009.
- Gruber, Sabine: Das Tagebuch. Ein Medium der Selbstreflexion, Mainz 2008.
- Heidenreich, Sybille: Max Frisch. Mein Name sei Gantenbein. Montauk. Stiller. Untersuchungen und Anmerkungen, Hollfeld 1978.
- Herbst, Alban Nikolai: Kybernetischer Realismus. Heidelberger Vorlesungen, Heidelberg 2008.
- Jeong, Hang-Kyun: Ästhetik des Abfalls. Eine Überlegung zu *Abfall für alle* von Rainald Goetz, Wirkendes Wort 61. (2011).
- Kempowski, Walter: Das Echolot. Ein kollektives Tagebuch. 4 Bände, Berlin 1993.
- Kempowski, Walter: Das Echolot. Barbarossa '41. Ein kollektives Tagebuch, München 2002.
- Kieser, Rolf: Max Frisch. Das literarische Tagebuch, Pforzheim 1992.

- Mann, Thomas: Sämtliche Erzählungen. Band 1, Frankfurt a. M. 1987.
- Mathias, Adelhoefer: Wolfdietrich Schnurre: ein deutscher Nachkriegsautor, Pfaffenweiler 1990.
- Metzler Lexikon Literatur: Begriffe und Definitionen, Frankfurt a. M. 2007.
- Potthast, Barbara: «Moderne Souveränität aus Schönheit und Wahnsinn. Bayernkönig Ludwig II. in Robert Walsers Prosaminiatur *Der Kostbare*», in: DVjs 81 (2007).
- Schmitz, Walter (Hrsg.): Max Frisch. Materialien, Frankfurt a. M. 1987
- Schnurre, Wolfdietrich: Der Schattenfotograf, Berlin 2010.
- Schumacher, Eckhard: Gerade Eben Jetzt. Schreibweisen der Gegenwart, Frankfurt a. M. 2003.
- Walser, Robert: Jakob von Gunten. Ein Tagebuch, Frankfurt a. M. u. Zürich 1985.
- Walser, Robert: Sämtliche Werke in Einzelausgaben. Bd 18, Zarte Zeilen. Prosa aus der Berner Zeit, 1926.
- Walser, Robert und Greven, Jochen (Hrsg.): Sämtliche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1.
- Wilpert, Gero von: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 Stuttgart 2001.
- Wolf, Christa: Ein Tag im Jahr 1960-2000, München 2003.
- <http://albannikolaiherbst.twoday.net/>

Zusammenfassung

Vom Tagebuch zu SNS

– Die gatt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Tagebuchs im Medienwandel

Choi, Eun-A (Sungshin Frauen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Gattungsgeschichte des Tagebuchs und seine Typologie behandelt. Das alltägliche Tagebuch zeichnet sich durch seinen chronologischen, subjektiven und authentischen Charakter aus. Jedoch ergeben sich diese drei Merkmale des Tagebuchs aus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ieser Gattung.

Das literarische Tagebuch experimentiert mit der Form des alltäglichen Tagebuchs, was seine Nichtlinearität, Öffentlichkeit und Fiktionalität zur Folge hat. In der Übergangsphase des Buchmediums zum digitalen Medium entstehen viele literarische Tagebücher, welche intermedial und nichtsukzessiv verfahren. Das Online-Tagebuch versucht vor allem den Augenblick der Jetzt-Zeit zu erfassen. In der Zeit der digitalen Medien entwickelt sich das Tagebuch zu Blog und SNS. Auch in Blog und SNS wird das Datum registriert, was für ein Tagebuch kennzeichnend ist. Besonders unterscheidet sich SNS vom traditionellen Tagebuch dadurch, was die Einheit der Zeitangabe kein Tag, sondern eine Uhrzeit ist. Außerdem setzen Blog und SNS Rezipienten voraus, so dass sie wie veröffentlichte literarische Tagebücher einen öffentlichen Charakter gewinnen.

Im Vergleich mit anderen Gattungen hat die bisherige Forschung dem literarischen Tagebuch keine große Aufmerksamkeit geschenkt. Darüber hinaus ist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r Gattung ‚Tagebuch‘ bis zum digitalen Zeitalter nicht systematisch untersucht worden. Hierzu leistet dieser Aufsatz

einen kleinen Beitrag.

주제어: 일기, SNS, 매체변화

Schlüsselbegriffe: Tagebuch, SNS, Medienwandel

필자 E-Mail: choisroad@naver.com

논문투고일: 2012. 9. 30, 논문심사일: 2012. 10. 26, 게재확정일: 2012. 11. 10.